

# 『三國遺事』 ‘景德王 忠談師’ 條와 <讚耆婆郎歌>의 意味 再考\* \*\*

黃柄翊

(慶星大 副教授)

## 要約 및 抄錄

황병익, 2019,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조와 <찬기파랑가>의 의미 재고, 183 : 203~241 본고의 논증과 해독 결과에 따라 1~4구는 敍景 표현에 승상의 마음을 담았고, 5~8구는 수풀과 자갈 벌에서의 회상과 추종심리를 담았다. 9~10구는 갖가지에 건주어 숭고한 대상을 명료히 했다. “아름다운 사내를 (화랑으로) 뽑아, 도의를 연마하게 하고, 그 무리 중에 바르고 바르지 않는 이를 살핀 후, 착한 인재를 가리어 조정에 천거”하던 郎僧(화랑 소속의 승려) ‘충담사’가 기파랑을 찬양하여 당시 미륵으로 추앙하던 화랑의 본모기를 만들어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화랑집단의 결집을 강화시킴은 물론이고, 나아가 전제왕권과 귀족들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정치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 경덕왕은 이 작품이 표현한 “기파랑이 지향하던 이상 세계가 높음(其意甚高)”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왕과 충담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음을 알 수 있다.

※核心語: 景德王, 忠談師, <讚耆婆郎歌>, 수풀(修鍊空間), 卅川 자갈벌

## 1. 들머리

<讚耆婆郎歌>는 다른 작품과 달리 창작동기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

\* 이 논문은 2019년 경성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을 받았습니다(2019039).

\*\* 이 논문은 2019년 5월 25일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열린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221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읽고 더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세심하게 살펴주신 숙명여대 박재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景德王이 忠談師에게 <安民歌> 창작을 요청하기 전에 충담사의 기존 작품 <찬기파랑가>를 두고 ‘其意甚高’가 맞는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기의 심고’가 이 작품에 대한 유일한 단서인 셈이니 작품의 성격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이 작품의 주제를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예찬” 정도로 설명한다.

반면 <찬기파랑가>는 <제망매가>와 함께 10구체 향가의 백미로서 시적 의미나 표현기법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을 얻고 있다.1) 비유 등의 문학적 수사는 작품의 우수성을 진단하는 기준이지만 해독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2), 양주동·김완진 선생님의 해독에도 차이가 너무 커서3) 중등 교육현장에서는 <찬기파랑가>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4)

이에 본고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회상과 찬양은 어떤 성격인가.”, “<찬기파랑가>를 ‘기의심고’라 한 까닭은 무엇인가.”, “<안민가>를 칭하고, 그에 응답하여 王師가 되어줄 것을 요청받은 경덕왕과 충담사의 정치적·사회적 입장은 무엇인가?”, “그동안 10구체 향가에 일관되게 적용한 4구-4구-2구의 공식을 <찬기파랑가>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한가.”, “작품의 키워드임에도 논자마다 다르게 해석해 온 ‘마음의 끝’이나 ‘花判’의 개념은?” 등 <찬기파랑가>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에 대하여, 논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讚耆婆郎歌>의 창작배경과 忠談師·耆婆郎

경덕왕은 왕권이 미약하고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효성왕(737~742)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즉위 초에 왕권은 외척과 진골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

- 
- 1) 이완형(2007), 「<讚耆婆郎歌>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p.221.
  - 2) 이현우(2017), 「경덕왕대 향가 5수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 분석 -배경설화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3집, 국제어문학회, p.278.
  - 3) 서정목(2014), 「<찬기파랑가> 해독의 검토」, <서강인문논총> 40,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pp.328~329.
  - 4) 염나리(2017), 「<찬기파랑가> 이해를 위한 학습 활동 구성 연구 -상징을 중심으로」, <국어 교과교육연구> 29, 국어교과교육학회, pp.57~59.

다. 이에 경덕왕은 감찰기관의 신설, 왕과 관련한 관부와 관원의 증치 등으로 왕권강화를 꾀했다.<sup>5)</sup> 東宮官衙를 정비하고 관료체제를 정비했으며, 국학에 諸業博士를 설치하여 관료교육을 강화하고(747년), 貞察 1원을 두어 백관을 규찰(748년)했다.<sup>6)</sup> 또 북변지방을 검찰하게 하고 대곡성 등 14군현을 설치하여 왕권 강화를 꾀했다. 그리고 漢化政策 등 中代를 통하여 형성된 지배체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관료체제를 재정비하려 했다. 이렇듯 경덕왕은 즉위 후에 외척을 배제하고 새로운 진골귀족들을 등용하여 왕권강화에 힘썼지만, 金順元·金思仁 계, 金崐 등은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 왕권을 견제해, 개혁정책은 이렇다 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sup>8)</sup> 763년에는 한화정책 추진의 증추를 이루던 상대등 信忠과 시중 金崐이 동시에 면직되고, 총신 李純까지 돌연 사직하고 승려가 되었다. 侍中의 비정상적인 퇴임과 공백 현상, 이후 상대등 金思仁의 시정득실 극론은 왕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외척, 진골귀족 세력과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덕왕의 왕권강화 정책은 한계를 보였기에<sup>9)</sup>, 경덕왕 후기를 전제정치가 기울어져간 분기점으로 이해한다.<sup>10)</sup> 경덕왕 16년(757), 神文王 때 폐지했던 ‘祿邑制’를 부활한 것도 전제왕권에 대한 진골귀족의 반항이고<sup>11)</sup>, 순탄치 못한 개혁 과정을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sup>12)</sup> 경덕왕 대는 갖가지 갈등 속에 귀족세력이 다시 대두하고 전제왕권은 쇠퇴해간 시기이다.<sup>13)</sup>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스님이 지은 <찬기파랑가사뇌가>가 그 뜻이 높다는데[其意甚高], 과연 그런가?” 하니, 충담사는 선뜻 동의한다. 흔히 누가 자기 작품을 칭찬하면 겸손하거나 부인한다. 그런데 왕의 하문에 충담사는 거리낌 없이 동의했으니 신하된 예<sup>14)</sup>, 일상적 예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5) 신정훈(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p.115.

6) 주보돈(1994),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p.325.

7) 신정훈(2010), 앞의 책, p.63, p.75, p.102 참조.

8) 이기백(1990), 신수관 『한국사신론』, 일조각, p.132 ; 주보돈(1994), 앞의 글, p.326.

9) 신정훈(2010), 앞의 책, p.115.

10) 이기백(1996), 『한국고대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pp.331~332.

11) 李基白·李基東(1982), 『韓國史講座』 1, 一潮閣, p.346.

12) 주보돈(1994), 앞의 글, p.326.

13) 이기백(1996), 앞의 책, p.335.

이에 이 대화의 속뜻을 살펴야 한다.

<찬기과랑가>의 評語 ‘其意甚高’를 “뜻이 매우 높다, 내용이 깊고 높다, 耆婆郎의 뜻이 매우 높다.”로 이해하고, “唐代批評의 意格을 뜻하는 말로, 王昌齡의 의격으로 보면 “事理의 의격이 매우 높다”이고, 皎然的 의격으로 보면 “<찬기과랑가> 도덕 입언의 격이 매우 높다”라고 하여 개념 논의가 진지해졌다.<sup>15)</sup>

- (1) 華西선생이 임종할 때, 죽은 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이는 뒤에 죽은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어찌 관여하겠는가?”라고 했으니 이 뜻이 매우 고상하다. 세상 사람이 평생 어찌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뜻으로 영위하다가 죽음에 임해도 여전히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자의 기상과 비견하면 매우 큰 차이다.<sup>16)</sup>
- (2) “편지를 받고 보니 문장과 담은 뜻이 고상하여 가히 선생의 학문이 높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sup>17)</sup>

(1)은 임종 시의 유언을, (2)는 편지글의 문장을 높인 평어이다. (2)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체를 ‘文’이라 하고 속에 담긴 뜻을 ‘意’라 했다. “높은 뜻이 하늘과 합치되니 자연의 모습은 무궁무진하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러 봉우리엔 귀한 풀들이 즐비하네.”에서는<sup>18)</sup> 남의 뜻을 높여 ‘高意’라 했으니, ‘기의심고’는 “상대방의 높은 뜻,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존중하여 이르는 말”로, <찬기과랑가>의 “막스막 未際此份)”과도 연관할 수 있다.

14) 이완형(2007), 앞의 논문, pp.224~225.

15) 楊熙喆(2005), 「'其意甚高' 연구의 문제와 전망」, <人文科學論集> 30,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p.31 ; 楊熙喆(2005), 「唐代批評으로 본 '其意甚高'와 <찬기과랑가>」,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pp.43~76.

16) “華西先生臨沒 不言身後事曰 此後死者責也 我何與焉 此意甚高 視世人平生不奈私意營爲 臨死猶規規有鋪排者氣象 相萬也”(柳重教, 答趙友三 甲申, 『省齋集』 卷20, 往復雜稿 ; 『韓國文集叢刊』(이하 『文叢』) 323, p.487.)

17) “來書 文甚高 意甚高 可見足下之學 亦甚高”(李顯益, 答李仁老, 『正菴集』 卷6, 書 ; 『文叢』 續60, p.267.)

18) “高意合天製 自然狀無窮 仙華凝四時 玉蘇生數峰”(孟郊, 『全唐詩』 6函 5冊, 題韋少保靜恭宅藏書洞.)

기과랑을 “향가연구가 시작된 이래 특별한 의심 없이 화랑으로 인정해 왔는데”<sup>19)</sup>, “냉정히 말하자면 기과랑을 화랑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기과랑에 대한 충담사의 태도와 죽지랑에 대한 득오의 태도와 유사한 까닭에”<sup>20)</sup> 관습적으로 인정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

- (3) “세종은 홀로 깨끗한 절개를 지키면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었으나 담담하고 사사로운 뜻이 없었다.”, “평생토록 한 사람도 책망하지 않았고, 한 소송도 그릇되게 판결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화랑 중의 화랑이었다.” 찬하여 이르기를, “태후의 사사로운 아들이요, 정승의 후예로서/맑고 곧으며 높은 행실은 화랑의 모범이로다.”<sup>21)</sup>
- (4) ‘우리 집안은 대대로 화랑을 이어받은 것으로 죽할 뿐, 어찌 다시 관직이 필요 하리오.’라고 말하며 물리쳤다. 보리공은 청렴과 결백으로 지조를 지켰으나 남 주는 태후의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내리는 재물이 심히 많았다.”<sup>22)</sup>
- (5) “사람은 3과를 고루 써서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고”, “천관공이 지금 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sup>23)</sup>

(3)~(5)는 각각 風月主 6세 世宗, 12세 菩提公, 24세 天光公에 대한 기록이다. 사사로운 뜻을 가지지 않고 깨끗한 절개를 지키는 것은 화랑에게 요구 하던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필사본 『화랑세기』<sup>24)</sup>에 이르기를, “어진 재상과

19) 박노준(2003),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 태학사, p.143.

20) 서철원(2013),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p.104.

21) “世宗公終始獨守清節 雖以美室之意 出將入相 淡然無私意”, “自以爲一生事 平生未嘗責一人誤一訟 眞花郎中花郎也”, “贊曰 太后私子 相國寵胤 清雅高標 花郎典型”(金大問 著, 이종욱 역주해(1999), 『화랑세기』, 소나무, p.247.)

22) “吾家世襲花郎足矣 又何用官乎 公清潔自守 而娘主以太后愛女賞與甚多”(金大問 著, 위의 책, 12세 菩提公, p.274.)

23) “人員均用三派 無至偏私”, “而知公之至公無私”(金大問 著, 위의 책, 24세 天光公, pp.306~307.)

24) “筆寫本 『花郎世紀』는 朴昌和가 일본 宮內廳 왕실도서관 자료를 손으로 베긴 것이므로, 바로 金大問이 쓴 『화랑세기』라 단정하긴 어렵다. 여전히 이 필사본과 拔萃本 두 문헌을 1930년~1945년 박창화의 창작 욕구를 담은 역사소설, 또는 僞作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여 쉽게 진위논쟁의 양단에 서거나 객관적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盧泰敦(1995), 「筆寫本 花郎世紀의 史料的 價值」, <歷史學報> 147, 歷史學會, pp.353~354; 金基興(2003),

충성된 신하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좋은 장수와 용맹스런 군사들이 이로 인하여 배출되었다.” 했고<sup>25)</sup>, 『신라국기』에 이르기를, “귀인들의 자제 중 아름다운 자를 가려 뽑아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받들었으며,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나라 사람들이 다 받들어 섬겼다. 이는 대개 왕의 정치를 돕기 위한 방편이었다. 선왕이었던 원화부터 신라 말까지 무릇 2백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四仙이 가장 어질었으니, 저 『세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sup>26)</sup> 하였다. “斯多舍은 眞骨에 속하고”, “그는 본시 문벌이 높은 귀족 출신으로 풍모가 淸秀하고 의지와 기개가 방정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화랑으로 추켜올리매 마지못하여 화랑 노릇을 하였는데 그에게 따르는 무리가 무려 1천 명에 달하였고 그들 전체의 환심을 끝냈다.”<sup>27)</sup> 화랑 사다함의 자질을 들어 찬양

「花郎世紀 두 사본의 성격」, <歷史學報> 178, 歷史學會, p.11).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摩腹子나 진지왕의 두 아들(김용춘·김용수)의 존재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김중성(2016), 『신라 왕실의 비밀』, 역사의 아침, pp.163~164 참조) “화랑 관련 사실, 왕위 계승, 골품제, 친족제(혈족, 혼인 등)를 확인하기도 한다.”(이종욱(2010), 「화랑세기를 보는 눈」, <한국고대사탐구> 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18). 일본이 1910년부터 압수해 가지고 간 조선고적이 약 20만권에 이르므로, 정부기관과 학계는 외교·문화·학술교류를 통하여 그 서적들의 書誌學的 정보를 만들고 유형을 분류하여 일본이 ‘보존도서’라 칭하며 공개를 꺼리는 『화랑세기』 원본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李熙眞(2010), 「최근 제기된 필사본 조작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p.272~273 참조), 역사학계의 논의 진전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사료의 활용을 유예했으나 그날이 요원하므로, 본고는 “화랑설치에서 只召太后의 역할, 圓光의 가계, 그리고 斯多舍 등에 관한 풍부한 내용이 오늘날 신라사 이해에 많은 암시를 주고”(權惠永(1989), 筆寫本 花郎世紀의 史料의 檢討, <歷史學報> 123, 歷史學會, p.195), “항가 연구 초창기에 향찰로 된 항가를 쉽게 창작할 수 없고, 調府右卿·兵部右丞 등 『삼국사기』에 없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며, 선덕여왕의 재위 시점을 고려하여 善德王·善德公主를 구분한 점”에 주목하여, “화랑들의 인맥 즉 신라인의 씨줄·날줄을 밝힌 화랑 世譜, 화랑도 조직과 그 운영 체계를 밝힌 낭정의 大者, 화랑도 안의 派脈과 그 갈등과 싸움을 밝힌 파맥의 正邪를 밝힌 것으로 인정”(이종욱(1997), 「花郎世紀의 신빙성과 그 저술에 대한 고찰」,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pp.27~31; 이종욱(2010), 앞의 논문, p.18)하는 필사본 『화랑세기』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고, 향후 역사학계의 연구 추이를 一覽하면서 객관적 시선으로 사료의 가치와 타당성을 점검할 것이다.

- 25) “其後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 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郎世紀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
- 26) “新羅國記云 擇貴人子弟之美者 傅粉粧飾而奉之 名曰花郎 國人皆尊事之 此蓋王化之方便也 自原郎至羅末 凡二百餘人 其中四仙最賢 且如世記中”(章輝玉(1991), 『海東高僧傳』, 民族社, pp.179~180.)
- 27) “斯多舍 系出眞骨 奈密王七世孫也 父仇梨知級滄 本高門華胄 風標淸秀 志氣方正 時人

하고 있는데, 이는 충담사가 기과랑을 칭송하는 마음과 매우 닮아 있다.

“공의 나이가 15세 때에 화랑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흠족한 마음으로 복종하여 龍華郎徒라고 불렀다.”<sup>28)</sup> 기록이 있다. “미륵이 부처가 될 때, 龍華樹 아래에 앉게 되는데, 꽃가지가 마치 용의 머리와 같기 때문에 이같이 이름 한다.”(『法苑珠林』) 하고, “龍華라 함은 龍宮에서 숭상하는 꽃이기 때문이라”(『大日經疏』 7)에서 화랑을 자주 미륵과 연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유신을 용화낭도라 칭송한 것처럼, 충담사가 <찬기과랑가>를 지은 것은 화랑의 정신적 지주격인 郎僧의 입장에서, 기과랑의 자질과 성품을 널리 알리어 낭도들이 畏敬感을 갖게 하고 화랑집단의 단합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용모의 사내를 (화랑으로) 뽑아, 도의를 연마하게 하고, 그 무리 중에 바르고 바르지 않는 이를 살펴본 후, 착한 인재를 가리어 조정에 천거”<sup>29)</sup>하였다는 내용은 『삼국사기』·『해동고승전』<sup>30)</sup>·『화랑세기』<sup>31)</sup>가 동일하다. 경덕왕이 <찬기과랑사녀가>를 익히 알고, 그 뜻을 높이 평가한 것은 인재를 가리어 천거한 충담사의 慧眼이 경덕왕과 이심전심으로 통했음을 보여준다.

### 3. <讚耆婆郎歌>의 구절 풀이

다음은 양주동과 김완진의 <찬기과랑가> 해독이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도 정확히 아래와 같이 분절되어 있으므로 분절에 대한 논란은 없지만,

請奉爲花郎 不得已爲之 其徒無慮一千人 盡得其歡心”(『三國史記』 卷44, 列傳 第4, 斯多舍.)

28) “公年十五歲爲花郎 時人洽然服從 號龍華香徒”(『三國史記』 卷41, 列傳 第1, 金庾信 上.)

29) “其後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 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

30) “三十七年 始奉原花爲仙郎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群遊 以觀其行義 舉而用之”, “其後選取美貌男子 傅粉粧飾之 奉爲花郎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娛遊山水 無遠不至 因此知人之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章輝玉, 앞의 책, pp.178~179.)

31) “古者仙徒只以奉神爲主 國公列行之後 仙徒以道義相勉 於是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花郎之史不可不知也”(金大問 저, 앞의 책, 序文, p.45, p.230.)

아래에서 짙게 칠한 부분은 해독상 이견이 크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열치매(열어 제치매(구름 장막을))** 咽鳴爾處米

**나토얀 드리(나타난 달이)** 露曉邪隱月羅理

흰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히(흰 구름 따라 쫓아서 떠가는 것 아닌가?) 白雲音逐  
于浮去隱安支下

**새파란 나리여히(새파란 내에)**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의 즈시 이슈라(기랑의 얼굴이(모양이) 있어라) 耆郎矣兒史是史蕝邪

일로 나리사 직혀히(이로부터 조약돌에) 逸烏川理叱磧惡希

郎이 디니다사온(낭이 지니시던(가지시던)) 郎也持以支如賜烏隱

므스릭 궂홀 좃누아져(마음의 가를 좃으려 하노라.) 心未際叱勝逐內良齊

아으 잣사가지 노파(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서리 뜯 누을 花掣여(서리 모를 화랑의長이여)<sup>32)</sup>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양주  
동 해독)

**늦겨곰 바라매(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불간 드라리(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흰 구름 따라 떠 간 언저리에)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모래 가른 물가에)**

耆郎의 즈시올시 수프리야.(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逸烏나릿 직혀기(逸烏내 자갈 벌에서)

郎이여 디니더시온(낭이 지니시던)

므스릭 ㄹ술 좃느라져(마음의 갖을 좃고 있노라.)

아야 자삿가지 노포(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누니 모뎀 두풀 곳가리여(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sup>33)</sup> (김완진 해독)

32) 梁柱東(1960), 訂補版『古歌研究』, 博文書館, pp.318~372; 梁柱東(1948), 詳註『國文學  
古典讀本』, 博文出版社, pp.246~247.

33)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pp.81~92.

## 1) 咽鳴爾處米

“‘咽鳴爾’ 3자는 “열(開)로 읽힌다. ‘열’이 장음이므로 ‘열오’ 밑에 ‘오이’를 첨기하여, ‘여오르’를 지었다.”<sup>34)</sup> 그러나 “‘咽鳴爾處米’를 전부 음독함은 訓主音從의 법칙에서 벗어나기에 “‘목메치매’라는 서재극의 해독을 최선으로 여겨 ‘늦겨, 흐늦겨’라’ 읽기도 한다.<sup>35)</sup> 후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1행 속에는 節義를 지키다가 이승을 떠난 孤高한 잣나무 같은 선비[文士], 또는 장군[武士], 耆郎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실사 ‘咽鳴’가 들어있다.”라는<sup>36)</sup> 풀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 “善化公主·他·密·嫁·置 등의 正用字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주로 실질형태소로 사용하고, 主·隱·只·良·古 등의 借用字<sup>37)</sup>는 조사나 용언의 어미 등 주로 형식형태소로 사용한다.”<sup>38)</sup> 점을 고려하면, ‘咽鳴爾處米’에서 ‘열오’는 혼독일 가능성이 높다.

- (1) “어마님이 드르샤 목메여 우르샤”(月釋 8:84), “과글이 밥 먹다가 목메어든 굶거플 혼 량을 더운 mre 덩가”(卒食噎陳橋皮一兩湯浸, 救簡 2:82), “**목멜 열(咽)**”(유합 상20), “믈든 목 메여 공경호를 겨신 적궤티 흐더라”(輒哽咽敬之如在, 東續三綱 孝3)
- (2) “寧考를 계승한 초기에 文祖에게 知遇를 받던 옛 친구를 방문하시니 공은 감히 다른 말을 올리지 못하고서 蓮燭을 받들고 **오열하였다**. 이는 선제의 은혜를 추모하여 충성을 다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하려 해서일 것이다. 公卿의 반열에

34)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pp.321~322

35) 金完鎭(1980), 앞의 책, pp.81~82.

36) 서정목(2014), 앞의 논문, p.330.

37) 正用字는 “한자 정통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 채 향찰·이두·구결 자료에 사용된 글자로서, 음이나 訓 중 어느 하나를 차용한 차용자에 대립되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訓讀’과 ‘音讀’이 있다. ‘借用字’는 “음이나 訓 중 어느 하나를 차용한 글자로서, 한자의 원래 뜻을 버린 채 사용되는 글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訓借’와 ‘音借’가 있다. 예컨대, <薯童謠>의 ‘善化公主’는 한자 정통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 音讀字에 해당하고, 마지막 구절의 “안고 가다”는 “抱(正用字, 訓讀)+遣(借用字, 音借)+去(正用字, 訓讀)+如(借用字, 訓借)”로 분석된다(박재민(2016), 『향가 해독과 훈차자·음차자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시가 연구』의 성과와 전망, 보고서, p.67, pp.78~84). “대상 자소를 그 훈을 내재한 채로 음으로 읽는 ‘公主’는 音讀이다(고창수(2011), 『신라 향가의 표기 원리』, 한성대학교출판부, p.31).

38) 박재민(2016), 위의 책, pp.83~86.

발탁되니 측근 重臣의 일을 맡기셨고 文苑에서 宗匠이 되어 笙鏞과 黼黻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sup>39)</sup>

(1)의 ‘咽’은 “목메다”로 쓰이고, (2)에선 ‘嗚咽’과 같은 말로 쓰인다. ‘爾’는 “너·이·가·까이”로 쓰이며, ‘爾’를 “그치-(止)”처럼 훈차로서 ‘그’로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止’를 취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sup>40)</sup>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혜성가〉),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원가〉)에서 ‘爾’를 읽는 독법에 따라 ‘이치미(이치미)’로 읽고, “모미 이치커든 저기 官桂湯과 粥무를 머져 모기 짓게 호고”(却身苦勞動少與官桂湯及清令喉潤, 救急 상77)처럼 “가쁘다, 피곤하고, 힘겹다, 지치다”로 읽고, 미약하고 쇠잔해진 상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咽嗚·嗚咽’은 비단 사람의 울음에만 국한하지 않고, “푸른 깃발은 바람에 나부끼고, 빨피리는 흐느껴 우네.”처럼<sup>41)</sup> 빨피리나 옥피리 소리를<sup>42)</sup> 비유하기도 한다.

(3) “뒤숭숭한 나그네 심회 쉽게 안정이 안 되는데, 더구나 또 갈바람 속에 스님을 떠나보내다니. **일반문 밖 청계의 흐르는 물소리도 전일과 완전히 다르게 목메어 우네.**”<sup>43)</sup>

(4) “시름 있으면 얼굴 찌푸리고 근심을 말 않으면, **얼음 밑 물 흐느껴 시원스레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대오. 대장부도 시름에 차면 큰 소리로 통곡해야지.** 머리 떨어뜨리고 부질없는 눈물 흘리지 않아야 하네. 행복하다, 苗君은 큰 도시에 숨어, 깊숙한 청산에서 술잎 씹으며 물 마시는 자를 웃는구려.”<sup>44)</sup>

39) “迨寧考嗣服之初 訪文祖知遇之舊 不敢以他道進 捧蓮燭而咽嗚 蓋欲追先帝恩 傾葵枕而圖報 擢鵷班於卿列 委畀以視聽股肱 執牛耳於文苑 賁飾以笙鏞黼黻”(金允植, 右議政 文翼公朴珪壽廟庭配享教諭書, 『雲養續集』 卷2, 教諭書 ; 『文叢』 328, p.558.)

40) 양희철(1997), 『삼국유사항가연구』, 태학사, p.604.

41) “靑旗飄颻颯 畫角咽嗚嗚”(趙綱, 『海行摠載』, 回槎錄, 乙未年, 12月 29日 己卯.)

42) “鮑石亭前水氣香 遺民尙說景哀王 千重鐵騎圍歌席 一隊花袍亂舞裳 輦路幾回芳草綠 荒城依舊暮雲黃 只今明月紅樓上 嗚咽唯聞玉笛揚”(丁若鏞 著, 송기채 역(1996), 계림에서 고적을 회상하다[鷄林懷古], 『茶山詩文集』 卷1, 詩; 국역 『다산시문집』 1, 민족문화추진회, p.33.)

43) “忽忽羈懷未易寧 秋風況復送師行 一般門外清溪水 嗚咽殊非舊日聲”(李崇仁 著, 이상현 옮김(2008), 送僧, 『陶隱集』, 한국고전번역원, p.446.)

위에선 흐르는 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목메어 운다.”고 이별의 슬픔을 표현했고, 물이 바위와 부딪쳐서 서로 싸우는 듯 내는 소리를 사람의 오열에 비유하기도<sup>45)</sup> 한다. “우리 흐르는 물레 같홀 ㄱ다니 ㄹ리 ㄹ그니 ㄴ히 소늘 ㄹ우소다”(磨刀嗚咽水 水赤刃傷手)<sup>46)</sup>처럼, ‘咽嗚爾處米’을 문맥에 따라 “(냇물이) 嗚咽(목뎨 울음) 이치매”로 읽고, “흐느껴 우는 듯 쿵쿵 흐르던 시냇물의 흐름이 점점 微弱·潺潺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 2)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앞 구절에서는 ‘安支下’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 (1) “한 마디도 그것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이 돌연히 劈空撰出의 달과의 문답체를 빌려와 前 8구에서 그것을 은연중 暗喩로 傍叙하고, 結 2구에서 ‘갓가지’를 빌려 그것을 正叙하였다. 그러나 우선 그 문답체의 천의무봉한 솜씨를 보라. 1~3구는 달에게 試問하는 辭, 4~8구는 달의 擬答을 취하며, 문-답-결사의 방식은 希臘 희곡의 ‘男·女·습’명과 不期而同되는 희한한 기법이다.”<sup>47)</sup>

양주동은 이 부분을 “아니냐?, 아니더냐?”라는 의문으로 읽어, “달아 너는 흰 구름을 좇아 서쪽으로 떠가는 것이 아니냐?”(1~3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달이 “나는 흰 구름을 좇아감이 아니로세.”(4~8구)라는 대답으로 이해했다. 소창진평은 “열치매 들어나 붉은 달이 흰 구름을 조차 떠가는 어디이오?”라 하여 ‘安支下’를 “어디냐?(어디드냐?)”<sup>48)</sup>로 파악했다.

- 44) “愁人臆額不言愁 有如水底之水 嗚咽不快流 丈夫愁來即大哭 不宜暗泣空低頭 幸哉苗君大隱九市中 笑却噴松噴水青山幽”(李奎報, 次韻陳翰林 題苗正字大隱樓在市場, 『東國李相國前集』 卷13, 古律詩; 정지상·이장우 공역(1980), 국역 『동국이상국집』 2, 민족문화추진회, pp.229~230.)
- 45) 崔致遠, 石上流泉, 『桂苑筆耕集』 卷20, 詩; 『文叢』 1, p.127; 이상현 역(2010), 『계원필경집』 2, 한국고전번역원, p.579.
- 46) 重刊本 『杜詩諺解』 卷5, 26b.
- 47) 梁柱東(1962), 『新羅 歌謠의 文學的 優秀性 -주로 讚者婆郎歌에 대하여』, 『國學研究論叢』, 乙酉文化社, pp.26~27.

- (2) “가죽이 없는데 털은 장차 어디에 붙일 것인가?”“항우가 말했다. 패공은 어디에 있는가.”, “申毗가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병사들의 집을 옮기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했다.“곧 조조에게 물었다. ‘조공에게는 虎侯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당신 아들이 왕이 되면, 그를 어디에 봉하려 하는가?”(安傳/安出/安在)<sup>49)</sup>

여기서 ‘安’은 의문형으로 쓰이므로, <찬기과량가>의 ‘安支下’를 의문대명사로 읽을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앞뒤 문맥을 고려한 신중한 문법 검증을 요하므로 단정을 유보한다.<sup>50)</sup>

‘沙是八陵隱汀理也中’을 “새파른 나리여히(새파란 내에)”<sup>51)</sup>로 읽거나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모래 가른 물가에)”<sup>52)</sup>로 읽은 성과는 그 후의 해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대목을 음독한 전자보다는 혼독한 후자를 따르고자 한다. “‘八’은 나눈다는 뜻이다. 나뉘어 서로 등진 모양의 상형이다.” 동일한 聲母와 韻母를 가진 글자인 別자로 八자의 의미를 해설했다. 지금 浙江지방의 속어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八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 나눈 것이다.<sup>53)</sup> 이에 “ㄹ름애 드르시니 ㄹ꺄겘이 ㄹ꺄디거늘”(月印 上39), “枝流는 ㄹ리 가리여 나 正流 아닌 거시라”(원각 상 1-1:23)에서의 ‘八’(ㄹ꺄디다, 가리다, ㄹ리다)을 취한다. ‘汀’은 “ㄹ꺄, ㄹ꺄, ㄹ꺄, ㄹ꺄, 즉 “ㄹ꺄가 河沿”(譯語類解 上7) 또는 “ㄹ꺄 汀(汀)”(類合 상6)으로, 沙

48) 小倉進平(1928), 『郷歌及び史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pp.173~175.

49) 각각 순서에 따라, “皮之不存 毛將安傅(『左傳』僖公 14), ”項王曰 沛公安在(『史記』項羽本紀), “申毗曰 陛下欲徙士家 其計安出”(『三國志』魏書 申毗傳), “乃問太祖曰 公有虎侯安在”(『三國志』魏書 許褚傳), “子當爲王 欲安所置之”(『史記』滑稽列傳補)이 원문과 출처이다.

50) ‘安’의 용법을 ‘무엇(何也)’, 구체적으로 ‘무스’와 ‘엇데’로 나누고, 뒤에 ‘支’가 놓였으니 ‘무스기’가 되겠다. “무스기 을후미 小法 즐기느니오”(何名樂小法者)(金剛 下97), “무스기 깃브미리오”(何喜)(永嘉 下17)로 본 견해가 있다(兪昌均(1996), 『郷歌批解』, 螢雪出版社, p.450.)

51) 梁柱東(1960), 訂補版 『古歌研究』, 博文書館, p.336.

52) 金完鎭(1980), 『郷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pp.80~81.

53) “八 別也 象分別相背之形 凡八之屬皆從八 此以雙聲疊韻說其義 今江浙俗語 以物與人謂之八 與人則分別矣”(염정삼(2010), 『說文解字注』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44.)

洲[해안에 저절로 생기는 모래톱]이나 汀瀝[작은 시내, 작은 물]과 같이, “알은 물 가운데 토사가 쌓여 물위에 나타난 곳”, 즉 “모래섬”(沙汀, 沙渚)을 일컫는다.

신라 향찰	
希(기)	中(기)
邊希(기) : 굿기	巷中(기) : 골기
尊衣希(기) : 尊의기	汀理也中(기) : 나리여기
積惡希(기) : 직벽아기	前良中(기) : 아라기

‘希’와 ‘中’은 신라 향찰에서는 위와 같다가 고려 향찰에서는 각각 ‘희’와 ‘히’로 변했다.<sup>54)</sup> 중세국어 위치자리토씨는 한 음절의 ‘애/에’와 ‘의, 의’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한 음절로 표기된 ‘良’에서 ‘애, 에’가 계승되었고, ‘中’과 ‘矣’ 등에서 ‘의/의’가 계승되었다. ‘良’은 ‘아/어’이고, ‘애/에’로 계승된 것은 ‘의/의’에 대한 유추현상이며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sup>55)</sup>

원시국어	고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良中(아히/어희)	良中(아히/어희)		
	良(아/어)	→ 애/에	→ 에
	中(히/희)	→ 의/의	

- (3) “ㄹ슬희 霜露 | 와 草木이 이울어든”(月釋 序16)  
 (4) “엇디 내 나라히 은혜 베프미 이시리오”(山城 64)  
 (5) “ㄹ름 ㄹ슬희 ㅎ오사 도라가는 ㅈ해”(江村獨歸處)(初刊本 杜詩諺解 23:6)

“內, 中間, 半”과 의미가 상통하는 조사 ‘中’(히, 의)은 시간과 공간 할 것 없이 두루 쓰이는데, “가·과>히·희>의·의”로 발달했고<sup>56)</sup>, “‘汀理也中’의 ‘理’를 고려하면 ‘물기스레’ 정도로 음성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어로

54) 양희철(2013), 『향찰 연구 16제 - 동형의 이두와 구결도 겸하여』, 보고사, pp.182~183.

55)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p.257.

56) 裴大溫(2002), 『史讀文法素의 通時的 研究』, 경상대학교출판부, p.61.

‘모래(를) 가른 물기슭에’로<sup>57)</sup> 읽는다. 앞의 문맥과 의미사거리 연결하면 “달이”(月羅理)→ “흰구름 좇아 떠가”(白雲音逐于浮去)→ “모래톱 가른 물 가운데 (비치었다).”(沙是八陵隱汀理也中)이다. 제3구의 ‘安支下’가 의문의 뜻이라면 4구는 그에 대한 답이 되겠다. 의역하면, “달이 구름 좇아가는 모습이 모래톱 갈린 물에 흰히 비쳤다.”이다.

3) 耆郎矣兒史是史藪邪 逸鳥川理叱磧惡希

‘兒’는 ‘貌’이다. “兒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얼굴의 모양을 상형한 ‘白’에 우뚝 선 사람을 본뜬 ‘儿(인)’을 결합했다.”, “허신이 ‘儀’자(곧이 덧붙여) 말한 이유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법도는 모양으로 상형되기 때문이다. ‘容’은 내면을, ‘兒’는 외면을 말한 것이다. 引伸되어 그 모양을 갖춘 경우에 ‘兒’라고 하였다.”<sup>58)</sup> 했으니, 기과랑의 겉모습을 말한다.

‘是史藪邪’<sup>59)</sup>는 “이슈라, 잇드라, 잇고야, 이시슈라”로 읽는 경우와 “수프리아, 수피야, 덤블여”로 읽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史’가 ‘是, 藪’를 분리한 것을 보면, ‘耆郎, 兒, 是, 藪’는 혼독이다. ‘藪’를 ‘ 숲’으로 읽으면 주로 은거의 장소, “숲과 같이 뻘뻘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무리 혹은 소굴”이다.<sup>60)</sup> 한편 “산[山藪]에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sup>61)</sup> 신라 <佛像造像銘>의 “石毘盧遮那佛을 조성하여 無垢淨光陀羅尼經과 나란히 石南巖 龕(도량, 石南巖藪) 觀音巖에다 둡니다.”<sup>62)</sup> 를 보면, ‘藪’는 “승방을 짓고 산과 숲과 전원과 밭을

57) 서정목(2014), 앞의 논문, p.350.

58) “兒 頌儀也 從儿 白象面形”, “(許慎) 必言儀者 謂頌之儀度可兒象也 凡容言其內 兒言其外 引伸之 凡得其狀曰兒 析言則容兒各有當”(염정삼(2010), 앞의 책, pp.418~419).

59) “음차자로 쓰인 것은 ‘으, 야, 아, 사’ 등이며 ‘語助’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라’ 소리 표기로 쓰였다.”(최남희(1996), 앞의 책, p.206.)

60) 양희철(1997), 위의 책, pp.724~725; 신재홍(1995), 위의 논문, p.36.

61) “然而不歸山藪修心 隨自身力 不捨善行”(元曉 지음, 무비 스님 강의(2015), 『發心修行章』, 조계종출판사, p.114.)

62) “石毘盧遮那佛 成內 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 觀音巖中 在內如”(永泰2年 佛像造成記, 766)(朴敬源(1985),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坐像 -智異山 內院寺石佛 探查始末』, 『考古美術』 168, 韓國美術史學會, p.9; 부산박물관(2013), 石南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마련하고 탑을 쌓고 겨울과 여름 안거에 참선할 곳과 도 닦을 도량을 마련해야 한다.”처럼<sup>63)</sup> 부처의 설산, 달마의 소림굴에 해당하는<sup>64)</sup> “참선할 곳, 도 닦을 곳(一切行道處)”을 말한다. 또, 경주 읍성 가운데 부윤 관사 북쪽의 ‘裨補藪’, “경주 동쪽 8리 동천가에 제방 숲이 5리를 뻗어 있다 하여 붙인” ‘五里藪’, 경주 동쪽 8리에 있는 ‘閑地藪’를 “금년에 사리역이 옮겨진 후에 예전처럼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는데, 남아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sup>65)</sup> 기록을 보면, ‘藪’는 단순히 우거진 숲을 칭하기도 한다.

“利見臺에서 二十乃里까지를 四同二라 하고, 乃兒里에서 月乃洞까지를 五同이라 한다.”, “영남 여러 고을에 한 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書員들이 맡은 한계를 同이라 한다.”<sup>66)</sup>

‘逸烏川理’는 기과랑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냇물의 고유명사로서<sup>67)</sup>, “숨을 逸”의 뜻[訓]과 ‘烏’의 소리[音]를 차용하여 “숨오나리, 수모나리”, 즉 현재의 ‘수모내’라는 주장에<sup>68)</sup> 따른다. 『東京雜記』에는 감포 利見臺부터 이십내리(수모내)까지를 동해면 四同二로 불렀다고 기록했다. 경주시내에서 감포 쪽으로 30km쯤 가면 ‘어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서남쪽 대종천을

蠟石舍利壺,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珍寶』, 디자인인트로 ; 대원애드컴(1998), 『부산의 문화재』, 부산광역시, p.13.

63) “建立僧坊山林園田 立作佛塔 冬夏安居 坐禪處所 一切行道處 皆應立之”(李圓淨 편, 목정배 역(2015), 『梵網經菩薩戒本彙解』, 운주사, p.407.)

64) “世尊 住雪山 六年 坐不動 達磨居少林 九歲 默無言 後來參禪者 何不依古蹤”(Mu Bi(2003), 自警文, 『Admonitions to Beginners』, 조계종출판사, p.67.)

65) “裨補藪 在府城中 府尹衙舍北 五里藪 在府東八里 東川邊 延袤五里 故名”, “閑地藪 在府東八里, 今年 沙里驛 撤移之後 依前種樹 以爲後日成藪之地 未知有能繼此 不替者否耶”(민주면·이체·김건준 저, 조철제 옮김(2014), 국역 『동경잡기』, 민속원, pp.207~208.)

66) “自利見臺 至二十乃里 爲四同二 自乃兒里 至月乃洞 爲五同”, “嶺南諸邑 年分書員 所掌之界限 謂之同”(崔南善(1913), 『東京雜記』, 朝鮮光文會, p.23; 민주면·이체·김건준 저, 위의 책, pp.224~225.)

67) 홍기문, 『향가해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p.200; 이도흠(1994), 「찬기과랑가의 새로운 語釋과 의미 해석」, 『文兼 全英兩博士華甲紀念論文集 國語國文學論叢』, 水原大 國文學科, p.678.

68) 이임수(2007), 『향가와 서라벌 기행』, 박이정, pp.140~141.

건너 형제봉에 이르는 계곡을 ‘시무내’, ‘수모내’[卍川]라 한다.<sup>69)</sup> 조선까지 ‘스무내리’라 부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스물·이십을 스물 卍자로 바꾸고 乃를 川으로 바꾸어 ‘卍川里’라 했다. 주민들 얘기로는 “물이 땅 밑으로 숨어 흐르는 내”이기에 수모내라 했고 옛날엔 이곳이 대중천 냇길과 맞닿아 동해와 남녘으로 넘어가는 요충지였다 한다. 지금도 비가 오면 수모내 계곡물이 대중천과 합쳐진다.<sup>70)</sup>

‘蹟惡’은 “돌지악, 직벽”(磔)이므로, 5·6구는 “耆(婆)郎이 즈시 이 수프리라, 수모 나릿 직벼과”가 되고, 의역하면, “기과랑의 모습이 이 숲, 스무내[卍川] 자갈벌에 있구나.”가 된다. 이 수풀과 자갈벌은 기과랑의 행적과 관련된, 그의 흔적을 담은 공간기이다. 기과랑이 따르던 郎徒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리던 냇가, 자갈벌, 우거진 숲이니 수련처란 말이고, 추억과 기억이 쌓여 모두들 이곳에 서면 자연 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는 말로 이해한다.

4) 郎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盼逐內良齊

불교에서 ‘지닌다(持)’는 “귀의한 사람이 번뇌를 끊고, 한량없는 법을 배우고, 중생을 제도하겠다(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衆生無邊誓願度) 결심하고”, “부처님 멀도하신 뒤, 이 경 능히 가지므로...”, “능히 이 경 갖는 이 내 몸을...”에서와<sup>72)</sup> 같이 “항상 경문을 독송하여 수행하다, 확고히 배워 보존한다.”는 뜻이다. 즉, ‘지념(持念)·억지(憶持)’, “기억하여 잊지 않는 확고한 신앙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 (1) “사람에겐 끝이 있기에 중생들은 그 근기에 따라 오래 살거나 짧게 산다. 甞宜가 주를 달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그 끝도 없이 돌고

69) “1991년 현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수모내, 수문내, 시모내, 시무내’ 등으로 다양하고, 또 ‘입천, 이십천’이라고도 한다.”(위의 책, pp.140~141.)

70) 위의 책, p.141.

71) 박재민(2013), 『新羅鄉歌 辯證』, 태학사, p.345. 다만 이 공간에서 기과랑을 추모하고 있다는 해석은 관점 차이를 보인다; 이도흠(1994), 앞의 논문, p.695.

72) “以佛滅度後 能持是經故”, “能持是經者 則爲已見我”(『妙法蓮華經』 卷6, 如來神力品.)

돈다 하였다.”<sup>73)</sup>

- (2) “자유자재하고 불가사의한 마음의 작용은 일찍이 그 궁극을 논한 적이 없고, 불법을 지키는 어둠 속에서도 그 끝이 없다.”<sup>74)</sup>

‘際’는 ‘邊, 限’과 함께 쓰여, “가장자리, 한계, 끝, 窮極”을 말한다. “그 끝의 가장자리는 마을의 숫자를 통해 대략 짐작해 볼 뿐, 보지 못한 부분까지는 알아서 헤아리지 못한다.”<sup>75)</sup>, “다가가 살펴보니 그 끝을 볼 수 없고, 가리키는 요체와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sup>76)</sup>에서 말하는 “가장자리, 끝과 경계”를 가리킨다. “세상이 어두우면 괴상한 말 난무하듯, 사당을 세우지 않아도 무덤 준비하고, 공 세워 이름 날리는 일의 길고 짧음이야 **마음(뜻)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산의 흠이라면 굴 하나 없는 것이네.**”<sup>77)</sup> ‘心際’, 즉 ‘므스미 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이나 뜻이 정한 바”이다. 心際는 “마음이 이르는 곳”[心行]과 비슷한 의미다.

- (3) “이는 반드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요 입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입으로만 외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허깨비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도 같이 허망한 것이다.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마음과 말이 서로 어울려 본디 성품이 부처님으로서 이 성품을 떠나 따로 부처님이 없다.”<sup>78)</sup>
- (4) “중생의 심행이 각기 다르니 어떤 때는 여럿이 하나의 심행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럿의 심행을 갖기도 한다. 한 사람이 여럿이 되는 것이나 여럿이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法綱, 즉 법률과 규율을 늘려 널리 전하여 심행의

73) “我有邊際 隨機延促 吳兆宜 注 付法藏經 流轉生死 無有邊際”(徐陵, 『東陽雙林寺傳大士碑』.)

74) “靈機未曾論邊際 執法無邊在暗中”(『景德傳燈錄』, 池州魯祖山教和尚.)

75) “其際限以里數者臆見 此不知鏡外又有測儀也”(李圭景, 測量天地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天文類, 天文總說.)

76) “迫而視之 端際不可得見 指捻不可勝原”(『晉書』 列傳, 第6章.)

77) “世入幽陰怪說紛 不尊祠宇重丘墳 功名夭壽違心際 歸咎其山穴不眞”(金昌翁, 葛驛雜詠, 『三淵集』 卷14, 詩, 108 ; 『文叢』 165, p.295.)

78) “此須心行 不在口念 口念 心不行 如幻如化 如露如電 口念 心行 則心口相應 本性 是佛 離性無別佛”(慧能 著, 원순 역(2005), 『六祖壇經』, 법공양, pp.66~67.)

새를 잡고자 할 따름이라.”<sup>79)</sup>

심행은 마음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수행하는 자세다. <찬기과랑가>에서 “郎(기과랑)의 지니시던 마음의 가[心際]를 좇겠다.” 했으니, 여기서 ‘마음의 가’는 “三昧의 오묘한 威德을 가지고/지혜는 그 끝 간 데가 없으며,/그 마음과 경계가 모두 깊디깊어 헤아릴 수 없으라.”에서<sup>80)</sup> 말하는 ‘心和境界’, ‘끝을 알 수 없는 지혜’(智慧無邊際)를 말한다. 즉, 기과랑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 마음에 생각하는 바는 넓고 깊어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럿이 하나의 心行을 갖고 그 지향점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된다. 이 구절은 “郎이 디니다(持) 주시온(賜), 막스막 그슬 좇느라져”가 된다. 충담사가 <찬기과랑가>를 지었지만, 작품에 담긴 추종이 비단 충담사의 감정만이 아니고 기과랑과 더불어 생활하고 수행·수련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찬기과랑가>를 두고 ‘其意甚高’라 평한 것도 이 때문이다.

#### 5)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花判’을 “서리 몬누을 花判여”<sup>81)</sup>, “서리 몬누을 國仙(國仙)여”<sup>82)</sup>, “누니 모듈 두폴 꽃가리여”<sup>83)</sup>, “눈이 모듈 녀리을 꽃갈야”<sup>84)</sup> 등으로 해석한다. “아아 자삿(栢)가지 높호 눈이 모두 드빅을 꽃마르여”(아아, 잣가지 높이 눈이 모이어 필 꽃가루여(눈이 모이어 필 꽃가루 같은 은빛 달빛이여)처럼<sup>85)</sup>

79) “衆生心行各各不同 或多人同一心行 或一人多種心行 如爲一人衆多亦然 如爲多人一人亦然 須廣施法網之目 捕心行之鳥耳”(天台, 『摩訶止觀』 卷5 上; 『大正新修大藏經』(이하 大正藏) 46, pp.1911~1912.)

80) “三昧妙威神 智慧無邊際 彼心及境界 一切皆甚深”(『大方廣佛華嚴經』 卷2,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正藏』 第10卷, 華嚴部 下, 大藏出版株式會社, 1970, p.668.)

81) 梁柱東(1960), 앞의 책, p.367.

82) 李鐸(1958), 鄉歌新解讀, 『國語學論叢』, 正音社, pp.240~242.

83) 金完鎭(1980), 앞의 책, pp.80~81.

84) 양희철(1997), 『삼국유사향가연구』, 태학사, pp.596~597.

85) 권재선(1983), 『讚者婆郎歌 語釋考』,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p.84.

다양하게 풀이한다.

그러나 ‘毛冬’이 “善芽毛冬長乙隱”(善芽 모듈 기른, 善芽 못 기른)(<청전 법륜가>), “毛冬居叱沙哭屋戶以憂音”(모듈 기스샤 우를 이 시름, 살아계시지 못하여 울 이 시름)(<모죽지랑가>)에서처럼 부정사 ‘뫼(뫼)’으로 읽고, “乃乎戶”을 “이에+오+르”을 결합한 “이올다”(凋, 萎, 落, 枯, 槁, 憔悴)로 해석하면 무리가 적다.

문제는 ‘花判’이다. ‘花判’이 耆婆郎을 지칭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 일치한다. 그러나 화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寺院과 花院을 같은 의미로 보아, 花判은 일체 사무를 주재 통괄하던 진골출신의 화랑으로서, 花院의 總宰者, 즉 화랑집단의 우두머리”<sup>86</sup>), “花郎長”<sup>87</sup>)이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따르고, 生命神·創造神<sup>88</sup>), 불경에 따라 “命·長命, 긴 목숨”으로<sup>89</sup>) 보고 “미륵의 화신으로, 이런 인물이 곧 왕세자로 탄생하기를 바란 것”<sup>90</sup>)이라고도 한다. 나아가 “신문왕의 명에 의해 깨끗이 자진함으로써 잣나무 같이 변하지 않는 지조와 충절을 만대에 남긴 그 당시 최고위직 화랑 출신 장군, 상대등 겸 병부령 金軍官을 찬양한 노래”<sup>91</sup>), “사건을 판결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판관이나 지방 수령”이라고<sup>92</sup>) 구체화하기도 한다.

- (1) “당나라에 관리를 선발하는 네 기준이 있다. 身言書判<sup>93</sup>), “判은 文理優長, 즉 문장을 지을 때 뛰어난 판단력으로 조리 있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독서와 문장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관리가 될 수 없었다. 조정 대신들도 공문서나 上奏文 등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십 구의 對偶를 사용해야 했다. 鄭畋의 勅書와 堂

86) 金鍾雨(1983), 『鄉歌文學研究』, 二友出版社, p.95; 尹榮玉(1980),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p.45.

87) 梁柱東(1962), 앞의 책, p.26.

88) 지현영(1971), 「善陵에 대하여」, <東方學志> 12, 연세대 국학연구원, p.147.

89)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p.342.

90) 崔喆(1983), 『鄉歌의 本질과 詩적 상상력』, 새문사, p.198.

91) 서정목(2014), 앞의 논문, p.331.

92) 芮昌海(1992), 「<讚耆婆郎歌>의 文學的 再構 및 解釋 試論」,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集文堂, p.149.

93) 『新唐書』 卷45, 志第35, 選舉志.

判도 모두 대우를 사용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소소한 이야기를 좋아하기에 판결문에 해학적인 말을 삽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판결문을 ‘花判’이라 한다. 화판은 내용도 충실하고 읽는 재미도 있다.’<sup>94)</sup>

- (2) “唐太宗이 좋은 정치를 구현하려고 정력을 기울이면서 軍國大事에 대해서는 中書舍人으로 하여금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그 이름 아래에 뒤섞어 써넣게 하였는데, 이를 五花判事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中書侍郎과 中書丞이 자세히 살피고 給事中和 黃門侍郎이 반박하여 바로잡게 하였으므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sup>95)</sup>

(1)을 보면, 당나라 관리 선발기준인 身言書判에서 ‘判’은 “뛰어난 판단력, 조리 있는 문장 표현”을 뜻한다. 또 “해학(재치 있고 익살스러운)이 들어간 판결문”을 ‘花判’이라 했다. (2)에서 ‘五花判事’는 “당나라 中書省에서 軍國에 관한 정사가 있을 때 中書舍人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다 이름을 雜書한 것”이다. 중서사인은 고려 중서문하성 判官職으로, 諫諍과 封駁의 책임이 있는 郎舍, 諫官 구실을 했다.<sup>96)</sup> “중서사인 6명이 조서를 쓰고 서명을 뒤섞어 나열할 때 먹의 농도에 따라 묶고 진한 글자체가 아름다워 마치 꽃송이와 같아서”<sup>97)</sup> ‘花書·花判’이라 했다. 참여 舍人의 수에 따라 5花 또는 6花判事라고 했다.

- (3) “內史의 소임은 舍人이 중요하기 때문에 五花判事란 미명을 얻게 되고, 하나의 부처가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니, 진실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

94) “唐銓選擇人之法有四 一曰身 二曰言 三曰書 四曰判 文理優長”, “非讀書善文不可也 宰臣每啓擬一事 亦必偶數十語 今鄭畋勅語 堂判猶存 世俗喜道瑣細遺事 參以滑稽 目爲花判 其實乃如此 非若今人握筆據案 只署一字亦可”(洪邁, 唐書判, 『容齋隨筆』卷10; 홍승직 외 옮김(2016), 『용재수필』 1, 학고방, pp.331~332, p.356.)

95) “唐太宗 勵精圖治 凡軍國大事 則中書舍人 各持所見 雜署其名 謂之五花判事中書侍郎 中書省省審之 給事中黃門侍郎駁正之 鮮有敗事矣”(『承政院日記』 고종 2년 5월 6일 경자.)

96) 邊太燮(1995), 中書舍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5.

97) “花書云者 自書其名而走筆成妍狀如花葩 中書舍人六員 凡書敕雜列其名 濃淡相間 故名爲六花判事 花書之起 其必始此矣”(程大昌 撰, 以華陽隱居代名花書, 『演繁露』卷2; 『四庫全書』子部, 雜家類, 雜考之屬.)

찌 그 소임에 맞겠는가. **그대는 문장이 훌륭하고 지조가 軒昂하여, 모든 清要한 벼슬을 거치되 언제나 顯赫한 명성을 드날려**, 臺綱(사헌부의 기강)이 떨치게 되매 조정 반열들이 모두 칭찬하였으며, 糾彈이 사가 없어 모질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의논이 막힘없어 결단하기를 물이 흐르듯 했다.”<sup>98)</sup>

- (4) “**붓은 五花判이었고, 冠은 한 뿔이 더 높았다.** 泮宮에서 사람을 가르치자 놀라울 만큼 70제자들이 속히 스승을 닮았고 예조에서 선비를 뽑았으니 어찌 30명의 사람만이 신선을 얻었을 뿐이라.”<sup>99)</sup>

(3)은 李奎報(1168~1241)가 中書舍人 金弁讓에 관해 쓴 글이다. 여기서 ‘內史’란 나라의 法典을 맡은 벼슬을 말한다. 김변양의 문장이 훌륭하고 지조가 軒昂하여 모든 清要한 벼슬을 거쳐 臺綱(司憲府<sup>100)</sup>의 기강)을 떨쳤다고 했다. 이에 그를 五花判事라 했고, 그는 빼어난 문장, 책임감·지조 있고, 清要한 태도로 오화판사라는 미명을 얻었다 했다. (4)는 이인로가 琴儀의 빼어난 글 솜씨를 두고 ‘五花’라 칭했다. 五花判事를 두고 ‘五花’<sup>101)</sup>라 하거나 ‘五花儀’, ‘判五花’로 부르기도 하고<sup>102)</sup>, ‘花判’<sup>103)</sup>라 줄이기도 한다. 여기서

98) “內史之司 舍人爲重 故得五花判事之美 至有一佛出世之稱 苟非其人 曷稱斯任 汝文章博瞻 志節軒昂 凡歷位於清華 輒揚聲於顯赫 臺綱所振 朝列皆稱 糾彈蔑私 不寒而慄 議論無滯 其決如流”(李奎報, 金弁讓中書舍人 不允批答, 『東國李相國集』 卷33, 敎書 批答 詔書.)

99) “筆判五花 冠峩一角 誨人於泮宮也 驚七十子之束肖 取士於春官也 豈三十人之得仙”(李仁老, 琴儀爲銀青光祿大夫 簽書樞密院事 左散騎常侍 翰林學士承旨 官誥, 『東文選』 卷25, 制誥.)

100) 고려 초, 唐宋관제를 받아들여 설치한 司憲臺를 고쳐 御史臺라 하다가, 1369년(공민왕18) 사헌부로 정착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는 왕권강화를 위해 臣權을 계속 견제·제약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101) “沙堤依舊倚門斜 喬木三韓積善家 道上問牛憂國切 朝中薦鶚進賢多 勳臣鐵券聯雙軸 冢相麻書疊五花 已道魯論分二半 更加一半著功何”(權近, 次松堂趙政丞韻, 『東文選』 卷17, 七言律詩), “要職方當戶 清班已亞坡 五花榮最好 一佛賀如何”(李奎報, 上中書舍人, 『東文選』 卷11, 五言排律)에서는 “백마서(관상서)에 五花를 접쳤네.”, “五花의 榮華가 그 지없는네”라고 했다.

102) “五花儀久廢 三尺法略施 原注 故事 舍人五花判事 今則廢之”(王禹偁, 謫居感事詩), “判五花, 唐故事有軍國事中書舍人 雜署其名 謂之五花判事鑑”(『韻府羣玉』 卷6, 下平聲.)

103) “花判 五花判事 詳花”, “判 普半切分也 半也 斷也 陸賈傳 自天地剖判”(『韻府羣玉』 卷15, 十四願.)

‘判’은 “半이나 斷”을<sup>104)</sup> 뜻하고, “정치를 한 집안처럼 하니 (이는) 하늘과 땅이 갈라진(개벽한) 이후로 없었던 일이라.”와<sup>105)</sup> 같이 쓰인다. 『說苑』 卷 12의 ‘剖判’은 “시비를 가리고 판단하다.”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 “옳고 그름을 갈라 판단·결정한다, 쪼개어 나누다(해결하다).”는 ‘剖斷·剖決·剖析’, “분명히 가려내어 명백히 해결한다.”는 ‘剖晰’이 있다. “經術하는 선비는 귀중한 것, 청렴과 재능은 세상에서 어질게 여기네. 화관 짚어 국론에 참여를 하고, 白簡 받들어 조정을 숙청했네. 좋은 벼슬 지내어 이름 더욱 나타났고, 천하를 맑게 할 뜻이 더 굳어졌네.”에서도<sup>106)</sup> “화관 짚어 국론에 참여를 하고(判花參國論)”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국정에 참여했던 말이다.

(5) “지금 세상에 石川子 있는데, 그 사람됨은 節操를 유지하네. 연꽃처럼 고고한 기상 갖췄으니, 어찌 크고 작은 걸 구별해 말하라. 그 옛날 나를 찾아왔었지. 山海亭 오두막집으로 보아하니 알차고 야무진 사람이라, 이런저런 귀한 얘기 나누었네. 石川의 천 그루의 굴, 알맹이 터뜨리니 혀에는 향기 가득! **돌아가 옳고 그름 분명히 하며, 그 절조 고치지 않았도다.** 비록 굶주려도 헛말을 않으니, 사람들은 그의 높은 道를 더욱 인정했네. 그의 빼어난 지혜와 警戒 숭상하여, 사무치는 그리움에서 헤어날 길 없네.”<sup>107)</sup>

(5)는 南冥 曹植이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을 두고 쓴 글이다. 1545년 (명종 즉위년), 금산 군수 임억령은 동생 林百齡이 尹元衡 등 小尹에 가담하여 大尹의 많은 선비들을 추방하는 을사사화를 주동하자 자책감을 느껴 사퇴하고 해남에 은거한다. 그는 천성적으로 도량이 넓고 청렴결백하며, 시문을 좋아하고 詞章에 탁월하여 당시 현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높은 道를

104) 『韻府羣玉』, 위의 책, 같은 부분.

105) “政由一家 自天地剖判 未嘗有也”(劉向 撰, 『說苑』 卷12, 奉使.)

106) “經術儒爲貴 廉能世所賢 判花參國論 捧簡肅朝聯 揚歷名尤著 澄清志益堅”(李仁復 (1998), 送楊廣按廉韓掌令哲冲, 『東文選』 卷11, 민족문화추진회, p.498.)

107) “今有石川子 其人古遺節 芙蓉儘聳豪 何言大小別 昔年要我乎 山海之蝸穴 看來豆子熟 琬琰東西列 石川千木奴 破甘香滿舌 歸來花判事 其行不改轍 雖飢不食言 人益紅爐雪 尙君明逸戒 有懸非解繼”(曹植, 贈石川子林億齡號, 『南冥先生集』 卷1, 五言古風; 『文叢』 31, p.467.)

유지하고, 食言을 앓았으니 “歸來花判事”는 언행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유지하는 절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에서 살핀 五花判事는 “해학적 판결문”, “조리 있는 문장”부터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여럿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을 자세히 살피는 신중한 의사 결정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유와 의미 층위를 가진다. 여기에, ‘花判’은 “評判과 같은 말이다. “蒲松齡의 『聊齋志異』 小謝에 따르면, 秋容은 본디 글을 알지 못했고, 塗鴉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평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란 애당초 어려워, 스스로 小謝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 注에 花判은 五花判事와 같은 것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잘남과 못남, 좋음과 나쁨)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sup>108)</sup>을 말한다. 그러므로 <찬기과랑가>의 ‘花判’은 기과랑의 인격과 품성을 한마디로 정의한 評語로, 실제 관직명이라기보다는 위 (4)의 “붓은 五花判”처럼 “中書舍人 判官의 역할에 견줄 만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내고 是非와 事理에 대한 판단력을 갖춘 기과랑을 추켜세운, 비유적 찬사”로 보인다. 조리를 갖춘, 빼어난 문장은 그 토대가 되는 능력이다. 이에 이 구절을 “아야 잣가지 노포/누니 모들 이올 花判이야”로 읽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1차 해독을 해보면, “1.(시넨믈) 우로 이치리, 2.나토산(드료산) 드리<sup>109)</sup> 3.흰 구름 조초 떠가는하(하) 4.모리 ㄱ룬 물긋기 5.耆郎의 즈시 이시 수프리라(수플야) 6.수모나릿 직벽아기 7.낭야 디니더시온 8.ㄱ스미 ㄱ을 좃노라져 9.아! 자싯가지 노포 10.누니 몯 이올 花判이여”이고, 이를 의역하면 “세찬 물살이 잔잔해진 뒤,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좃아 떠 가서, 모래톱 가른 물속에! (비쳤구나.) 耆婆郎의 모습이 선한 수풀(이라), 수모내 [卍川] 자갈벌에서, 낭게서 지니시던, 뜻과 이상을 좃노라. 아! 잣가지 높아, 눈도 시들게 못할 (청렴한) 評判(判決)이여.”가 된다. 9~10구를 다시 다듬으면, “아아, 높은 잣나무 가지가 눈이 내려도 시들지 않는 것처럼, 청렴과

108) 花判. 猶評判. “秋容素不解讀 塗鴉不可辨認 花判已自顧不如小謝 有慚色 何垠註 花判如五花判事 猶言判其好醜也”(蒲松齡, 『聊齋志異』 卷6, 小謝, 岳麓書社, 2019, pp.260~261; 羅竹風(2008), 『漢語大詞典』 9上, 漢語大詞典出版社, p.290.)

109) “드라리 그르메 느린 못갓(月羅理 影支 古理因 淵之叱)”(<怨歌>에 ‘月羅理’의 용례가 있다.

지조로 일의 옹고 그림을 판별하던 기파랑이여!”가 된다.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찬기파랑가>의 의미단위를 3구-5구-2구, 또는 5구-3구-2구로 나누었지만<sup>110)</sup>, <찬기파랑가>도 여느 10구체 향가처럼 4구-4구-2구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 4. <讚耆婆郎歌>의 시적 세계와 성격 분석

기존에 <찬기파랑가>의 주제는 “淨土에의 憧憬·想念”<sup>111)</sup>, “死後齋式(追慕祭)에서 올린 佛讚歌”<sup>112)</sup>, “난국 극복에의 간구와 염원”<sup>113)</sup>, “感動的 情調를 담은 讚頌”<sup>114)</sup>, “醫者인 耆婆를 찬미함으로써 왕의 性的 결함(玉莖長八) 치유하고 나아가 아들을 얻으려는 呪願力을 발휘한 노래”까지<sup>115)</sup> 매우 다양하다. 불교·주술·서정적 성격 등 내용 이해도 다양각색이고, 기파랑 생전에 지었는지 사후에 지었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에 비친 달’(水中月)과 ‘높은 잣가지’는 <찬기파랑가>의 의미 파악에 중요한 비유다.

- (1) “이별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대서, 반드시 모두 장부는 아니고말고 남아 있는 그대의 마음 상할까 봐, 억지로 즐거운 표정 지었을 뿐일세. 이미 오솔길로 문을 나온 뒤에는, 누가 날 자주 머뭇거리게 하는지 원, **깨끗하기 물속의 달 같은**

110) “그 결과 4·5구의 순서를 바꾸어, “흐느끼며 바라보매/이슬 밝힌 달이/흰 구름 좇아 떠간 언저리에/노화랑의 모습일시 숲이여”로 단락 구분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서정목(2014), 앞의 논문, p.355.)

111) 梁柱東(1962), 앞의 책, p.28.

112) 金東旭(1961),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p.23; 임주탁(2012), 「소통 문맥을 통해 본 향가의 특성과 그 의미」, <語文學> 118, 한국어문학회, pp.133~135. <찬기파랑가>를 “기파의 극락왕생 사상과 수도의 자세를 추모하고, 왕생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품”(신재홍(2006), 『향가의 미학』, 집문당, pp.432~435)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113) 김승찬(1999), 『신라 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p.268.

114) 李在鎡(1972), 「新羅鄉歌의 語法과 修辭」,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pp.168~170.

115) 張珍昊(1997), 『新羅鄉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pp.119~120.

입이여. 잡으려다가 다시없음을 깨달았네. 인생이 서로 아는 이도 많건마는, 또 한 다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sup>116)</sup>

- (2) “마음이 물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구태여 오물을 씻어 낼 까닭 있을까. 차라리 맛 좋은 술이나 마시고, 돌 위에 누워서 노래나 부르리.”<sup>117)</sup>

물속에 비친 달로 인해 기과랑을 떠올리던 화자는 심리적 연쇄 작용을 일으켜 과거 추억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둘째 단락은 이러한 추억의 공간에서 기과랑이 지냈던 내면의 고결성과 만나게 된다.<sup>118)</sup> 제2~5구는 “달이 흰구름(을) 좇아 떠가 숨어 지어(내리어, 下) 물 가운데 기과랑의 모습을 가졌구나(지냈구나/갖추었구나)”, 이는 곧 ‘물가운데(水平面/水中)에 기과랑의 모습(=달)이 있다’가 되면서, ‘水中之耆郎貌=水中之月’의<sup>119)</sup> 등식으로 계산한다. (1)과 (2)에서 물에 비친 달은 깨끗한 이미지에 대응한다. “左丞 賢兄은 中庸의 도리로 온후하게 대처하고 大雅의 인품으로 청렴하게 행하시어 마치 맑은 하늘을 떠받치는 산악의 정상에 구름이 한 점 없고, 가을 풍경을 반사하는 못 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아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아름다운 업적을 빛내셨다.”<sup>120)</sup> 맑고 청렴한 인품을 갖춘 인물을 못 속에 비친 달에 비유하고 있다. ‘달’은 흔히 부처나 임금 등 숭고한 숭배 대상이 된다. 기과랑은 또 ‘높은 잣나무 가지’에 견주어진다.

- (3) “저의 머리는 물벼들과 같아서 가을을 바라만 보아도 곧 잎이 지지만, (임금의 머리는) 송백과 같아 눈과 서리를 겪으면 더욱 무성해지기 때문입니다.”<sup>121)</sup>

116) “別離不下淚 未必皆丈夫 恐傷居者意 強顏作歡愉 既已經出門 誰使頻蜘躄 皎如水中月 欲捉還覺無 人生多結識 亦復胡爲乎”(黃玿, 途中有懷寄茂亭, 『梅泉集』 卷2; 임정기 역 (2010), 도중에 회포가 있어 무정에게 부치다, 『매천집』 1, 한국고전번역원, p.366.)

117) “心如水中月 汙泥何敢澆 不如飲美酒 長歌石上臥”(車天輅, 奉呈藥圃東臯 二首, 『五山集』 續集 卷1, 五言古詩; 『文叢』 61, p.472.)

118) 박수밀(1996), 「<讚耆婆朗歌>의 文學的 意味와 世界觀」, <東方學> 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p.69.

119) 양희철(2005), 앞의 논문, pp.43~76.

120) “賢兄左丞 中庸處厚 大雅含清 柱晴空而嶽頂無雲 瑩秋色而潭心有月 是得歷游華貫 輝綽令猷”(崔致遠 저, 이상현 옮김, 盧紹給事에게 보내는 글, 앞의 책(2009), p.301.)

121) “顧悅與簡文同年 而髮蚤白 簡文曰 卿何以先白 對曰 蒲柳之姿 望秋而落 松柏之質 凌

(4) “소나무 잣나무가 무성하듯이 당신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네. 정현이 주를 달 기를, 송백의 가지가 늘 무성하고 푸른색을 유지하여 쇠락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sup>122)</sup>, “난을 만나도 덕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추위가 닥치고 서리와 눈이 내릴 때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무성함을 이는 것과 같다.”<sup>123)</sup>

柏·栢은 잣나무라고도 읽고 측백나무라고도 읽는데, 모두 상록수다. (3)에서 松柏(栢)은 항상 푸르기 때문에 곧고 굳센 지조·불변을 상징한다. (4)에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늘 푸르고 싱싱하다(松柏之茂) 말한다. “변치 않는 곧은 절개”를 ‘松柏之志’라 하고, ‘松柏後凋’는 “志士는 위기와 곤경 속에서도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는 뜻이다.

(5) 竹竹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마땅하지만 내 이름을 죽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꺾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어찌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적군에게 항복하겠는가?”라고 한 뒤, 힘껏 싸우다 성이 함락되어 용석과 함께 전사하였다.<sup>124)</sup>

(6) “유신이 겨울이 찬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아는 법<sup>125)</sup>인데 오늘 사태가 위급하니 그대가 아니면 누가 용감히 싸우며 특출한 일을 이룩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겠는가?”라 말했다.<sup>126)</sup>

(5)와 (6)에서 대나무와 소나무와 잣나무는<sup>127)</sup> 모두 적과 싸워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변하지 않고 더욱 꽃꽂한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비유로 쓰였

霜猶茂”(劉義慶 撰, 林東錫 譯註(2011), 『世說新語』 1/4, 동서문화사, p.212.)

122)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鄭玄箋 如松柏之枝葉常茂盛 青青相承 無衰落也”(『詩經』 小雅, 天保 ; 『詩經集傳』 卷9.)

123) “臨難而不失其德 天寒既至 霜雪既降 君是以知松柏之茂也”(『莊子』 讓王.)

124) “君言當矣 而吾父名我以竹竹者 使我歲寒不凋 可折而不可屈 豈可畏死而生降乎 遂力戰 至城陷 與龍石同死”(『三國史記』 卷47, 列傳7, 竹竹.)

125)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論語』 子罕.)

126) “(庾信)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 今日之事 急矣 非子誰能奮勵出奇 以激衆心乎”(『三國史記』 卷47, 列傳7, 丕寧子.)

127) “是則竹栢異心而同貞 金玉殊質而皆寶也”(『文心雕龍』 第47, 才略.)

다. <怨歌>에서도 “갓나무는 실하여, 가을이 되어도 시들지 않는다”(物叱好支栢史 秋察尸 不冬 爾屋支 墮米)는 비유를 활용한 적이 있다. <원가>를 통해 볼 때, <찬기과랑가>의 ‘高’와 ‘好’는 모두 갓나무와 기과랑에 대한 자질과 품격을 논하는 평어로 활용한 말일 수 있다. 눈 속에서도 잎의 빛이 변하지 않는 송백이라는 뜻의 ‘雪中松柏’에서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눈’은 더욱 굳은 지조와 절개를 뜻한다.

- (7) “생각하건대, 경은 타고난 자품이 깨끗하고 마음가짐이 견고하며, 국가의 전례에 익숙하고 의리에 통달하며, 청백하고 검소한 것으로 백성을 다스려 일찍부터 선량한 관리로서 이름이 드러났고, 마음과 뜻이 못 사람보다 높고 크게 뛰어나서 재상의 체통을 지녔었다. 柏府의長이 되니 기강이 서고, 廟堂에 들어오니 국책이 결정되었다.”<sup>128)</sup>

(7)은 嶺敦寧 柳廷顯에게 几杖을 하사하는 敎書의 내용인데, 여기서 ‘柏府’는 곧 司憲府이다. “4월 27일 辛酉에 왕세자가 兼輔德 李慶徽를 보내어 조제한 제문 중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아가서는, 한 지방에 끼친 은택 흘러 넘쳤네. 급기야 사헌부의 장관[長栢府]이 되어, 무너졌던 기강을 진작시켰네. 성균관서 후생들을 잘 가르쳐서, 청아의 교화를 크게 도왔네.”<sup>129)</sup>, “中書에서 서명할 적에 五花의 判事에 참여하였고, 栢府에 발탁됨에 한 마리 수리가 허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도다.”, “재주와 식견의 소통이 내직과 외직 모두 적합하기에, 지조의 공정함과 진실함을 가상히 여겨 임금의 총애가 더욱 융성하였다. 평생 거취가 분명하였으니 어찌 흠결을 걱정하겠는가.”에 서도<sup>130)</sup> 오화판서의 지조와 공정과 진실과 사헌부의 장관[長栢府]을 연관

128) “惟卿稟資精純 秉心堅確 諳練國典 識達義理 清儉治民 夙著循吏之風 磊落出衆 蔚有宰相之體 長栢府而紀綱張 入廟堂而謀猷定”(『世宗實錄』 卷26, 세종6년(1424) 12월 10일, 辛亥 2번째 기사.)

129) “(初四月) 二十七日 辛酉 王世子 遣兼輔德李慶徽諭祭曰”, “出按湖節 澤流一方 及長栢府 振肅頽綱 國子教胄 化贊菁莪”(金堉, 潛谷 年譜, 『潛谷遺稿』, p.51.)

130) “署名中書 參五花之判事 蜚英栢府 瞻一鶚之橫空”, “由其才識之疎通 內外俱適 嘉乃志操之公亮 眷注彌隆 生平去就之分明 何恤乎疵玷”(李觀命, 教江華留守黃欽書, 『屏山集』 卷8, 應製文; 『文叢』 177, p.156.)

짓고 있다. ‘잣나무’의 이미지<sup>131)</sup>와 서슬 퍼런 청렴과 소신으로 기강을 잡아야 하는 ‘사헌부’의 특징을 결합한 말이다.

(8) “衆魔 | 不能壞眞說이니 眞說은 長如栢在庭하니라 幾見雪霜이 凋萬木고마른 盤空聳檻하야 更青青하도다” = “衆魔 | 어루 眞說을 허디 몬하느니 眞說은 기 리 자시 뜰헤 이솝 곤하니라 몇 마 눈과 서리의 萬木을 떠러디게 호몰 보아노 마른 虛空에 서리며 軒檻에 소사나 가시야 퍼러하도다”(여러 마귀가 가히 진실한 설법을 헐지 못하므로 眞說은 키 큰 잣나무가 뜰에 있는 것과 같으니라. 눈과 서리가 모든 나뭇잎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허공에 서리어 있으면서 대청기둥 바깥에 솟아나 다시 퍼렇도다.)<sup>132)</sup>

잣나무에 부여하는 이미지는 한결같다. 이에 “<찬기과랑가>는 여러 자연물의 색채가 ‘잣나무’로 집약되면서 맑고 밝은 색채이미지와 원뿔형의 형상을 통해 기과가 지닌 인격과 이념의 고결함을 드러냈다”, “기과가 남긴 말, 문도들이 좇는 마음의 끝, 잣나무를 두고 표명하는 화랑의 서원 등이 자연의 색채와 결합된 것”으로<sup>133)</sup> 보기도 한다. (8)에서 변치 않는 진리와 깨달음의 이야기, 즉 眞說을 뜰 앞에 서 있는 키 큰 잣나무에 견준다. 충당사도 기과랑을 잣나무에 견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강직함을 유지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9) 贊하여 이른다. “比梁公이 남긴 기상이요, 魏花郎의 후손이로다. 적을 친 공이 컸으나 스스로 불모지만 택했도다. 저 靑鳥山 가운데 송백처럼 길이길이 푸르리라.”<sup>134)</sup>

(10) “세종은 홀로 깨끗한 절개를 지키면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었으나 담담하고 사사로운 뜻이 없었다.”, “평생토록 한 사람도 책망하지

131) 金聖基(1992), 「怨歌의 해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p.117.

132) 이유기(2002), 역주 『南明集諺解』,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232~233.

133) 신재홍(2017), 『향가의 연구』, 집문당, p.35.

134) “比梁遺氣 魏花之孫 征虜功高 自居不毛 靑鳥山中 松柏長靑”(金大問 지, 앞의 책, 5세 斯多含, p.241).

않았고, 한 소송도 그릇되게 판결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화랑 중의 화랑이었다.” 찬하여 이르기를, “태후의 사사로운 아들이요, 정승의 후예로서, 맑고 곧으며 높은 행실은 화랑의 모범이로다.”<sup>135)</sup>

- (11) ‘우리 집안은 대대로 화랑을 이어받은 것으로 족할 뿐, 어찌 다시 관작이 필요 하리오.’라고 말하며 물리쳤다. 보리공은 **청렴과 결백으로 지조를 지켰으나** 남 주는 태후의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내리는 재물이 심히 많았다.”<sup>136)</sup>

(9)는 斯多舍에 대하여, “적을 친 공이 컸으나 스스로 불모지를 선택한 삶을 칭찬하며, 靑鳥山 가운데 송백처럼 길이길이 푸르리라.”라고 頌祝했다. (10)은 世宗에 대하여 장수와 정승으로서 깨끗한 절개를 지킨 삶이라 칭송하며 화랑의 모범이라 치켜 올렸다. (11)은 菩提公이 화랑으로서의 명예에 만족하며 관작을 물리치고 청렴과 지조를 지킨 삶을 칭송했다. 耆婆郎의 청렴과 지조와 절개를 단적으로 규정한 말이 곧 ‘花判’인데, (10)·(11)처럼 실제 벼슬 아치 判官이라기보다는 화랑 가운데 “높은 잣나무 가지가 눈이 내려도 시들지 않는 것처럼, 청렴하게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은 ‘判官’ 역할을 한 기과랑”을 칭송한 말이다. 『화랑세기』에 24세 풍월주 天光이 “사람은 3과를 고루 써서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sup>137)</sup> 기록이 있다. “불교 偈頌에 ‘저울에 파리한 마리라도 앓게 해서 안 된다. 일단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바르고 평평함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저들이 들어가는 곳은 비록 바르지 않지만, 그 마음을 쓰는 것은 매우 높다.”<sup>138)</sup>고 했다.

경덕왕이 충담사를 향해 질문한 ‘其意甚高’가 <찬기과랑가>에 관한 평어

135) “終始獨守清節 雖以美室之意 出將入相 澹然無私意”, “自以爲一生事 平生未嘗責一人 誤一訟 眞花郎中花郎也”, “贊曰 太后私子 相國寵胤 清雅高標 花郎典型”(金大問 著, 위의 책, 6세 世宗, p.247.)

136) “吾家世襲花郎足矣 又何用官乎 公清潔自守 而娘主以太后愛女賞與甚多”(金大問 著, 위의 책, 12세 菩提公, p.274.)

137) “人員均用三派 無至偏私”, “而知公之至公無私”(金大問 著, 위의 책, 24세 天光公, pp.306~307.)

138) “釋家偈辭有云 秤頭不許蒼蠅坐 些子一傾失正平 彼類入頭 雖不正 然用意甚高”(柳重教, 大學說, 『省齋集』 卷24, 講說雜稿, 『文叢』 323, p.570.)

이고 <찬기과랑가>는 기과랑의 높은 뜻을 찬양한 것이므로, 기과랑의 뜻이 매우 높다고 한 것과 맥이 통한다. 거기다 앞 구절에 “기과랑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 마음에 생각하는 바<sup>139)</sup>, 즉 ‘마음의 끝’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므로” ‘其意甚高’는 耆婆郎의 志向·指向과 理想이 넓고 높았고, 경덕왕·충담사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낭도들도 다 인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일찍이 양주동은 기과랑의 꿈과 이상을 두고, “무한한 憧憬과 머나 먼 이상”, “고고한 자태, 그 드높은 포부와 교양과 인격”이라 하고, “서방은 想必 淨土에의 憧憬·想念일시 분명하나, 구태여 佛說에만 의지할 것도 아니다.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미지의, 不可見의, 영원한, 궁극적 彼岸의 세계를 말한다. 이는 耆郎의 고매한 정신의 표시일 뿐 아니라, 실로 인류의 이상의 영원한 문제”라고<sup>140)</sup> 설명했다. 화랑에 대한 평어로는 “온화한 말씨(溫言), 큰 뜻(大志), 謙讓”(春秋公), “인정, 신의, 인심, 충성, 너그러움, 어짊”(欽純公), “단아, 온화, 자상”(體元公) 등으로 다양하다. “성품이 활달하여 맑고 탁함을 가리지 않는 사교성”(欽純公)을 가졌음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충담사 관련 서사와 <찬기과랑가>에서 형상화한 기과랑의 이미지는 이와 같은 평어와는 구분하여 맑음·청렴·公正·判斷力·高志·高意·지조·절개 등을 강조한다. 즉, <찬기과랑가>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명쾌하게 가리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判官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던 기과랑을 높이 치켜세워 찬양한 작품이다.

경덕왕대의 승려 교류가 이전과는 다르게 횡수가 높고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덕왕대의 佛事는 재위 13년인 754년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정치와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강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승려들을 등용하고,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치에 힘썼다.<sup>141)</sup> 화랑은 창설 당시부터 인재를 선

139) “(기과랑의) 마음의 끝을 좇겠다고 한 것은 그 정신의 최고 경지, 그 정점에까지 도달하여 이를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뜻이다.”(박노준(2003),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 태학사, p.148.)

140) 梁柱東(1962), 앞의 책, pp.28~29.

141) 전보영(2013),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史學研究> 112, 한국사학회,

말하기 위한 장치였고, “할아버지 角干 欽春은 진평왕 때에 화랑이 되어 마음이 매우 인자하고 신의가 두터워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가 장성하매 문무대왕이 그를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그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관후한 정책으로 백성을 다스리니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진 재상이라고 칭찬하였다.”<sup>142)</sup> 전례가 많다. 경덕왕은 충담사를 통해 기과랑에 대한 인물평을 재확인하여 천거를 받고 <안민가>를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을 향한 방법론을 찾았고, 충담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sup>143)</sup>했다. 흔히 화랑은 眞骨의 자체로 구성되어 “귀족 세력과 왕권의 조화 내지는 타협을 상징하고”<sup>144)</sup>, “眞骨·하급귀족·일반평민출신으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조하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왕권을 지지하고 진골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제적 구실을 한 것”이 현실적인 위치였다.<sup>145)</sup>

이렇듯 <찬기과랑가>에 표현한 세계가 명료하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추모의 노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천거의 노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실증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담사가 “‘기과랑’과 같은 인물이 신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나라가 태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국왕 통치 방식의 변화만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향가를 통해 던진 것’”으로<sup>146)</sup> 이해할 여지는 충분하다. “일반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화랑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기과랑이 하늘의 달처럼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땅에 흐르는 푸른 물과 조약돌처럼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임을 강

pp.53~68.

142) “祖欽春(或云欽純)角干 眞平王時爲花郎 仁深信厚 能得衆心 及壯 文武大王陟爲冢宰 事上以忠 臨民以恕 國人翕然稱爲賢相(『三國史記』 卷47, 列傳 7, 金令胤.)

143) 충담사의 협조나 <안민가> 창작은 “백성들의 삶을 가련하게 생각하는 기과랑의 마음”을 본받아 실천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성호경(2004), 『讚者婆郎歌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p.136), <찬기과랑가>와 <안민가>는 “나라가 평안하려면 신하들이 왕을 잘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읽기도 한다(박인희(2018), 『경덕왕대 향가 4수의 의미와 역할』, <韓國詩歌文化研究> 42, 韓國詩歌文化學會, pp.102~103).

144) 이기백(1975), 『신라 초기 불교와 귀족 세력』, <震檀學報> 40, 震檀學會;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1978, pp.86~94.

145) 李基東(1997),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pp.360~361.

146) 임주탁(2012), 앞의 논문, pp.133~135.

조”한 작품이다.<sup>147)</sup> 충담사는 <찬기과랑가>를 통해 ‘기과랑’을 모두가 연모하고 추앙하고 찬양할 만한 대상으로 형상화한다. ‘기과랑’을 대쪽 같은 청렴함을 가진 인물임을 강조하여 화랑의 귀감으로 추천한다. 즉, 그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판단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讚은 간략하게 서술하여 감정과 사물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언어를 결합해야 한다. 사람의 업적을 기린 것이 찬이다.”<sup>148)</sup> 충담사의 <안민가>가 경덕왕에게 正命과 正法治國이라는 부처의 교법을 전하여 정치적 안정을 염원한 노래라면, <찬기과랑가>는 기과랑을 만민에게 추앙받을 존재, 이상적 인격의 전형으로 설정하고<sup>149)</sup> 그의 청렴한 인물됨과 치우침 없는 판정능력을 褒揚·褒讚한 작품이다. “탑을 옮길 때 승려 守行이 그곳에 도량을 건립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리가 쏟아져 나왔다. 일반 불자들에게 공개하고 讚佛을 마치기도 전에 사리가 땅에 가득 쌓였다.”에서의<sup>150)</sup> ‘讚’도 부처의 숭고함을 기리어 분명히 한 것이듯, <찬기과랑가>는 기과랑의 빼어난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낸 칭송이자 찬가이다.

## 5. 맺음말

<찬기과랑가>에 등장하는 달과 구름, 시냇물과 자갈, 눈(서리), 잣나무의 이미지와 색채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써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해탈과 속박, 聖과 俗, 보편과 특수 등을 비유나 상징 등으로 이해하고 도식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에 앞서 시어나 단어 단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작품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마땅하다.

147) 손중흠(2011), 『고전시가미학강의』, 앨피, pp.73~74.

148) “(讚) 約舉以盡情 昭灼以送文 此其體也”, “勳業垂讚”(劉錕 著, 최동호 역편(1994), 『文心雕龍』, 민음사, pp.134~137.)

149) 하정화(2004), 「신라향가에 나타난 유가적 윤리성 -安民歌와 讚者婆郎歌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8, 한국동양예술학회, p.75.

150) “移塔之時 僧守行建道場 出舍利俾士庶觀之 嘔讚未畢 滿地現舍利”(段成式, 『西陽雜俎』 續集 卷5; 정환국 역(2011), 『유양잡조』 2, 소명출판, p.140, p.469.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찬기과랑가>는 달과 구름이 물에 비치고, 물에 비친 달로 인해 ‘기과랑’을 자동 추억하고 회상하는 계기가 되어, 수련의 장인 자갈벌에서 기과랑이 추구하던 마음의 지향점을 떠올린다. 나아가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잣나무에 비유할 정도로 ‘花判’으로서의 모습, 즉 강직하고, 명쾌한 판단을 갖추었으며, 고고한 지조와 기개를 겸비한 기과랑의 모습을 숭상하고 찬양한 작품이다. 1~4구는 敍景의 표현에 숭상의 마음을 은근히 담았고, 5~8구는 수풀과 자갈 벌에서의 회상과 추종의 마음가짐을 담았다. 9~10구는 잣나무 가지에 견주어 숭고한 대상의 자질을 더욱 명료하게 했다. 화랑에 속한 郎僧이 한 인물을 찬양한 것은 당시 미륵으로 추앙하던 ‘화랑’의 본모습을 치켜세워,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고, 전제왕권과 귀족들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정치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인증 문제를 유보한다면, 필사본 『화랑세기』와 <찬기과랑가>에서 제시한 화랑의 表象은 대동소이하여, ‘기과랑=화랑’의 등식은 자연스럽게 성립하지만, 역사학계의 검증 과정을 좀 더 지켜본 후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參考文獻>

##### 1. 자료

『筆寫本 花郎世記』,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佛說勝軍王所問經』, 『世說新語』 賞譽, 『全唐詩』 卷339, 『省齋集』 卷20, 『正菴集』 卷6, 『海行摠載』 回槎錄, 『桂苑筆耕集』 卷20, 『陶隱集』, 『東國李相國前集』 卷8 卷13 卷33, 重刊本 『杜詩諺解』 卷5, 『三國志』 魏書 申毗傳, 『史記』 滑稽列傳補, 『妙法蓮華經』 卷6 如來神力品, 『東陽雙林寺傳大士碑』, 『晋書』 列傳 第6章, 『三淵集』 卷14, 『景德傳燈錄』, 『六祖壇經』, 『摩訶止觀』 卷5 上, 『五洲衍文長箋散稿』 天文總說, 『大方廣佛華嚴經』 卷2, 『新唐書』 卷45 選舉志, 『容齋隨筆』 卷10, 『承政院日記』 高宗 2년 5월 6일, 『演繁露』 卷2, 『東文選』 卷25 制誥, 卷17 七言律詩, 『東文選』 卷11, 五言排律, 『韻府羣玉』 卷6, 『韻府羣玉』 卷15, 『說苑』 卷12 奉使, 『梅泉集』 卷2,

『五山集』續集 卷1 五言古詩, 『世說新語』, 『南冥先生集』 卷1 五言古風, 『詩經』 小雅 天保, 『詩經集傳』 卷9, 『莊子』 讓王, 『論語』 子罕, 『文心雕龍』 第47 才略, 『世宗實錄』 卷26, 『潛谷遺稿』, 『屏山集』 卷8, 『西陽雜俎』 續集 卷5, 『雲養續集』 卷2 教諭書, 『茶山詩文集』 卷1 詩, 『省齋集』 卷24 講說雜稿, 『東京雜記』, 『聊齋誌異』

## 2. 논저

- 고창수(2011), 『신라 향가의 표기 원리』, 한성대학교출판부, p.31.
- 권재선(1983), 「讚者婆郎歌 語釋考」,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p.84.
- 金基興(2003), 「花郎世紀 두 사본의 성격」, <歷史學報> 178, 歷史學會, pp.1~27.
- 金東旭(1961),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p.23.
- 金相鉉(2007),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 元曉와 憬興의 國王論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30집,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p.100.
- 金聖基(1992), 「怨歌의 해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p.117.
- 김승찬(1999), 『신라 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p.268.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pp.81~82.
- 김종성(2016), 『신라 왕실의 비밀』, 역사의아침, pp.163~164.
- 金鍾雨(1983), 『鄉歌文學研究』, 二友出版社, p.95.
- 대원에드컴(1998), 『부산의 문화재』, 부산광역시, p.13.
- 朴敬源(1985),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坐像 - 智異山 內院寺石佛 探查始末」, <考古美術> 168, 韓國美術史學會, p.9
- 박노준(2003), 『옛사람 옛노래 향가와 속요』, 태학사, p.143.
- 박수밀(1996), 「<讚者婆郎歌>의 文學的 意味와 世界觀」, <東方學> 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p.69.
- 박인희(2018), 「경덕왕대 향가 4수의 의미와 역할」, <韓國詩歌文化研究> 42, 韓國詩歌文化學會, pp.102~103.
- 박재민(2013), 『新羅鄉歌 辯證』, 태학사, p.345.
- \_\_\_\_\_ (2016), 「향가 해독과 훈차자·음차자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시가 연구사의 성과와 전망』, 보고사, p.67, pp.78~84.

- 裴大溫(2002), 『吏讀文法素의 通時的 研究』, 경상대학교출판부, p.61.
- 邊太燮(1995), 中書舍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5.
- 부산박물관(2013), 『石南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蠟石舍利壺』,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珍寶』, 디자인인트로.
- 서철목(2014), 『<찬기과랑가> 해독의 검토』, <서강인문논총> 40,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pp.328~329.
- 서철원(2013),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p.104.
- 성호경(2004), 『讚者婆郎歌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p.136.
- 小倉進平(1928),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pp.173~175.
- 손중흠(2011), 『고전시가미학강의』, 엘피, pp.73~74.
- 신재홍(2006), 『향가의 미학』, 집문당, pp.432~435.
- \_\_\_\_\_ (2017), 『향가의 연구』, 집문당, p.35.
- 신정훈(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p.115.
- 梁柱東(1948), 詳註 『國文學古典讀本』, 博文出版社, pp.246~247.
- \_\_\_\_\_ (1962), 『新羅 歌謠의 文學的 優秀性 -주요 讚者婆郎歌에 대하여』, 『國學研究論攷』, 乙酉文化社, pp.26~27.
- \_\_\_\_\_ (1960), 訂補版 『古歌研究』, 博文書館, pp.318~372.
- 양희철(2013), 『향찰 연구 16제 - 동형의 이두와 구결도 검토』, 보고사, pp.182~183.
- \_\_\_\_\_ (2005), 『‘其意甚高’ 연구의 문제와 전망』, <人文科學論集> 30,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p.31.
- \_\_\_\_\_ (2005), 『唐代批評으로 본 ‘其意甚高’와 <찬기과랑가>』,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pp.43~76.
- 양희철(1997), 『삼국유사향가연구』, 태학사.
- 염나리(2017), 『<찬기과랑가> 이해를 위한 학습 활동 구성 연구- 상경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29, 국어교과교육학회, pp.57~59.
- 염정삼(2010), 『說文解字注』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44.
- 芮昌海(1992), 『<讚者婆郎歌>의 文學的 再構 및 解釋 試論』,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集文堂, p.149.

- 元 曉 지음, 무비 스님 강의(2015), 『發心修行章』, 조계종출판사, p.114.
- 俞昌均(1996),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p.450.
- 尹榮玉(1980),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p.45.
- 李基東(1997),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p.360.
- 이기백(1990), 신수판 『한국사신론』, 일조각, p.132.
- \_\_\_\_\_ (1996), 『한국고대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pp.331~332.
- \_\_\_\_\_ (1978),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韓國研究院.
- 李基白·李基東(1982), 『韓國史講座』 1, 一潮閣, p.346.
- 이도흠(1994), 「찬기과랑가의 새로운 語釋과 의미 해석」, 『文兼 全英雨博士華甲 紀念論文集 國語國文學論叢』, 水原大 國文學科, pp.669~700.
- 이완형(2007), 「<讚者婆郎歌>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어문학> 96, 한국 어문학회, p.221.
- 李圓淨 편, 목정배 역(2015), 『梵網經菩薩戒本彙解』, 운주사, p.407.
- 이유기(2002), 역주 『南明集諺解』,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232~233.
- 이임수(2007), 『향가와 서라벌 기행』, 박이정, pp.140~141.
- 李在銑(1972), 「新羅鄉歌의 語法과 修辭」,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pp.168~170.
- 이중욱(1997), 「花郎世紀의 신빙성과 그 저술에 대한 고찰」,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pp.1~34.
- 李 鐸(1958), 「鄉歌新解讀」, 『國語學論攷』, 正音社.
- 이현우(2017), 「경덕왕대 향가 5수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 분석 - 배경설화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3집, 국제어문학회, p.278.
- 李熙眞(2010), 「최근 제기된 필사본 조작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p.259~297.
- 임주탁(2012), 「소통 문맥을 통해 본 향가의 특성과 그 의미」, <語文學> 118, 한국 어문학회, pp.133~135.
- 張珍晷(1997), 『新羅鄉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pp.119~120.
- 전보영(2013),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史學研究> 112, 한국사학회, pp.53~68.

- 주보돈(1994),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p.325.
- 지현영(1971), 「善陵에 대하여」, <東方學志> 12, 연세대 국학연구원, p.147.
-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p.257.
- 崔 喆(1983), 『鄉歌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 새문社, p.198.
- 하정화(2004), 「신라향가에 나타난 유가적 윤리성 -安民歌와 讚者婆郎歌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8, 한국동양예술학회, pp.52~83.
-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1982), 『韓國佛敎大辭典』 1권, 5권, 寶蓮閣.
- 황병익(2012), 「安民歌의 창작 배경과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 35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194~201.
- Mu Bi(2003), 自警文, 『Admonitions to Beginners』, 조계종출판사, p.67.

이 논문은 2019년 8월 10일 접수되어 9월 10일까지 심사받아 9월 30일 발행

■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Changiparangga(讚耆婆郎歌)>  
and ‘King Gyeongdeok, Monk Chungdam(景德王 忠談師)’ of  
Samguk yusa(三國遺事)

Hwang, Byeong-i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rguments and interpretation of this paper, the translation of <Changiparangga, Ode to Giparang> is as follows. As the rough water becomes calm, the moon appears. Chasing and floating after the white clouds, (it shines) on the water dividing the sandbank! ■The forest and the Sumonae[Ipcheon, 廿川] gravel field (are the places) where Giparang(耆婆郎)’s image is still vivid. There, we shall follow his will and ideals. ■Ah! (uncorrupt) Judgment(判定), you are the branch of the towering nut pine that even snow fall can not damage,

Here, the “forest” is a training space for the Hwarang(flower knights, an elite warrior group of male youth), and “Hwapan(花判)” is an abbreviation for “Ohwapansa(五花判事)” which means “making good judgement about beauty and ugliness(beauty and ugliness, good and bad, right and wrong)”. When I refine the 9~10 lines, they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Just as the branch of a towering nut pine is not damaged when snow falls, Giparang, you are a man of great virtue who made good judgement about right and wrong with integrity and unyielding principles.”

The 1~4 lines express the admiration for Giparang in the scenery descriptions(敍景), and the 5~8 lines describe the memories and reverence in the forest and the gravel field. The 9~10 lines compare him to the branch of a nut pine to show clearly how noble the subject is. Chungdam was a ‘Buddhist monk belonging to the Hwarang organization’(郎僧), who was

choosing beautiful boys(as Hwarang), training them in the principles of moral justice, finding the right ones in the group, and recommending the good talents to the royal court. "Monk Chungdam gave a direction, praising Giparang and making him as a model figure of the Hwarang who were worshiped as Maitreya. By doing that, he intended not only to strengthen the bonds within the Hwarang, but also to make the society politically stable by strengthening ties between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aristocrats. King Gyeongdeok already knew "how lofty Giparang's ideal world is"(其意甚高), what this song represents. It means that the king and Monk Chungdam thought alike.

※ key-words: King Gyeongdeok, Monk Chungdam, <Changiparangga>, Forest(training space), Ipcheon(廿川) gravel field, Ohwapansa (五花判事), Judgment about right and wrong, Integrity and unyielding principles, Admiration and praise, Recommendation (薦舉), Goal to pursue with the heart(心行), Ideal world, Political stability